

## 1967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그 트라우마와 전향\*

- 시리아 시인 니자르 깡바니를 중심으로 -

| 임 병 필\*\* |

Lim, Byung-Pil

### **A Study on the 1967 Arab-Israel War, his Trauma and Conversion**

-On the Focused of Syrian Poet Nizar Qabbani-

Nizar Qabbani', after he experienced the incredible defeat and smashing collapse in the 1967 War, was conversed from the poet writing love and women's liberation to the poet criticizing to the responsible someone for the defeat with a knife in his mind.

Through his many works after the 1967 War, Qabbani did not blame the main enemy Israel but accuse the inside problems of Arab world. Because he thought that the cause of the defeat was in the dictators, the decayed politicians, pro-imperial literary men, not in the intervention of the Western Imperialism that offered the modern weapon to Israel like as the regimes and the politicians insisted. And also he thought that in the background of the preparing and taking part in the war, the Arab traditional and cultural heroism about the war was functioned.

So Qabbani began to express his malicious language to the inner Arab world with a knife not to the main enemy Israel. After all we can say that the works of Nizar Qabbani after the 1967 War were on the basis of "the poetics of disclosure and counter-poetics".

---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2-A00021).

\*\*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연구교수, 010-2255-0396, bplim@hanmail.net



[Key Words: 1967 Arab-Israel War, conflict, defeat, trauma, Nizar Qabbani, love, conversion, commitment, the poetics of disclosure]

## I. 서론

시리아 시인 니자르 깡바니(1923~1998)는 사랑에 관한 솔직한 표현과 여성의 권리를 촉구함으로써 수많은 팬들을 사로잡았던 ‘사랑과 여성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그런데 사랑을 노래하던 그가 1967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의 충격과 트라우마로 인해 아랍세계 내부를 향해 독설을 퍼붓는 ‘칼을 품은 시인’으로 전향했다. 니자르 깡바니의 전향은 “1967년 패배 이후에 깡바니의 오래된 세계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의 초기 목소리는 사라졌고, 스스로 돈 후안과 같은 이미지를 버렸다. 그는 도덕주의자가 되어 나타났으며,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Allen 1987, 247)라고 표현될 정도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니자르 깡바니를 사랑 시인에서 혁명적인 행동가로 전향하게 만들었을까? 그는 왜 전쟁의 주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보다는 아랍세계 내부를 향해 분노를 퍼부어야만 했을까?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통해 1967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분명하게

1) 니자르 깡바니는 30여권 이상의 시집과 3편의 평론집을 발표하였다: 『갈색피부의 여인이 나에게 말했다』(1944), 『젓가슴의 어린 시절』(1948), 『삼바』(1949), 『당신은 나의 것』(1950), 『시들』(1956), 『나의 연인』(1961), 『글자로 그림 그리기』(1966), 『1967년 대패의 노트 위에 쓰인 각주』(1967), 『무기력한 여인의 일상』(1968), 『야만의 시』(1970), 『사랑의 책』(1970), 『100개의 연애편지』(1970), 『위법의 시들』(1972),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하 총총』(1978), 『언제나 당신은 내 사랑』(1978), 『나는 당신만이 나의 여인임을 맹세합니다』(1979), 『바그다드의 달을 향한 다마스쿠스의 노래들』(1979), 『이렇게 나는 여성의 역사를 쓴다』(1981), 『연인들의 사진』(1981), 『미친 시들』(1983), 『사랑은 빨간 선위에 멈추지 않는다』(1983), 『단어들은 분노를 알고 있다』(1983), 『시와 함께한 나의 이야기』(1983), 『비난받는 시들』(1986), 『나는 너 자유와 결혼했다』(1988), 『미친 공화국』(1988), 『내 손에 있는 성냥과 종이로 만들어진 당신들의 작은 나라』(1989), 『한 연인의 비밀 편지』(1989), 『사랑만이 승리자』(1990), 『각주의 각주』(1991), 『내 슬픔의 한숨 소리를 듣느냐』(1991), 『나는 외톨이 남자, 당신은 여성 부족』(1993), 『여성 칭송 50년』(1994), 『이스하끄 까까마의 니자르 변이형』(1996). 그 외에도 『시는 초록색 등불이다』(1964), 『쓰기는 혁명적 작업이다』(1978), 『시는 무엇인가』(1981) 등의 평론집이 있다.



드러난 니자르 깡바니의 시세계 변모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1967년 전쟁 이전에 쓰인 사랑시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시인의 시세계와 작가 의식이 1967년 전쟁을 통해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1967년 전쟁 이후에 쓰인 작품들을 아랍세계 내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작품들을 분석할 것이다. 왜냐하면 깡바니는 여러 작품을 통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들이 이스라엘의 강한 군사력이나 서구 제국주의의 지원 때문이 아니라 아랍세계 내부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2)</sup>

무엇보다 이 작업은 전쟁과 문학의 관계를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랍 세계는 이슬람 이전 시대(450~622)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으며, 전쟁은 언제나 문학에 뚜렷한 흔적을 남겨왔다. 전쟁은 문학사조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문학의 경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랍연합국 군대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운 지 6일 만에 대패한 일은 아랍문학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대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 ‘사랑과 여성의 시인’으로 각인되어 있던 니자르 깡바니조차도 그 패배의 충격과 트라우마로 인해 무능한 아랍의 정치체제를 향해, 침묵하는 아랍민중들을 향해 분노와 울분을 토해내는 ‘참여 시인’<sup>3)</sup>으로 전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sup>4)</sup>

2) 1967년 6일전쟁의 패배와 그 충격은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모로코, 리비아 등 전 아랍세계의 시인과 작가들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작품을 통하여 패배의 원인과 패배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 시작하였다.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측면, 아랍 사회에 만연된 구조적 모순과 비리, 독재 정치와 자유의 억압, 빈곤과 지성인의 역할 부재, 원리에서 이탈한 이슬람... 결국 작가들의 관점은 아랍 사회의 후진성과 서구 제국주의의 오만이 6일전쟁 패배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모아졌다(송경숙 2005, 322). 사실 이 논문은 Saddik Gohar가 쓴 논문(2011)을 중심축에 놓고 깡바니의 변모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작품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깡바니의 시세계가 1967년 전쟁의 패배와 트라우마로 인해 사랑에서 참여로 전향한 사실을 보다 대조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이 선행연구들과 차별되는 점이다.

3) 사실 시인은 시대와 상황을 불문하고 당대의 시대상을 표출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시인들은 참여 시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논문에서 ‘참여’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1948년 이전까지는 사회 현실에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단계였다면, 1948년 이후부터는 시인과 시가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해야만 한다는 의식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 II. 사랑과 여성의 시인

니자르 캅바니는 16살인 1939년에 첫 번째 시를 썼고, 1944년에 『갈색피부의 여인이 나에게 말했다』라는 첫 시집을 발표했다. 이 시집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스타일의 28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후반 무렵에 발표되었다. 당시 아랍세계에서는 새로운 실험들이 시도되고 있었지만 고전시형(까시다)이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었으며,<sup>5)</sup> 전쟁 중이라 그런지 창작활동이 매우 저조하였다. 그러나 전쟁 말기의 다마스쿠스는 급변하고 있었으며 세대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캅바니는 새로운 세대를 위해 개방과 사회적 자유가 필요함을 역설함으로써 사랑과 성에 관한 침묵의 벽을 깨부수고자하였다.

특히 캅바니는 일상어와 다마스쿠스에서만 사용되는 관용구들을 시에 사용하였으며, 젊은 세대들은 구어체<sup>6)</sup> 어휘들을 사용하는 시인의 스타일에 열정적으로 응답하였다(Badawi 1992, 160). 그의 작품은 젊은 남녀들에 의해 침실에서 거리에서도 낭송되었는데, 젊은이들은 시인이 갈망, 흥분, 사랑, 욕망, 반항

4) 전쟁의 허무한 패배는 이번 전쟁을 팔레스타인 해방전이 될 것으로 믿으며 전쟁을 고대하기까지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다. 특히 아랍민족주의라는 대의나 아랍 형제국들에 대한 기대감조차도 사라졌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민족의 생존권을 회복하고 민족적 주체성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혁명과 무력투쟁뿐이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송경숙, 2005, 321). 이것이 바로 니자르 캅바니를 혁명가, 참여 시인으로 전향하게 만든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5) 20세기 초부터 새로운 형식(유절시, 무운시, 산문시, 극시, 자유시 등)을 통해 고전시형을 탈피하려는 실험들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신고전주의 시인들, 디완그룹 시인들, 아폴로그룹 시인들을 거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그 외의 아랍지역에서는 1940년대 중반까지도 여전히 고전시형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자세한 것은 임병필, 2006, 『아랍시의 자유와 전통』 참조.

6) 아랍문학에서는 구어체 아랍어가 진지함이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문어체 아랍어를 더 우월한 언어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구어체가 대중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유리하다는 점, 대중 언론 매체의 출현과 구어체시에 대한 관심, 대중 가수들의 역할 등으로 인해 구어체시가 일반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여러 가지 편견에도 불구하고 유산과 시대성, 전통과 혁신을 통합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구어체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임병필, 2007, “아랍어 구어체시의 발전과정 연구” 참조.



과 같은 감정들을 자신들의 언어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에 이 집트의 소설가이며 문학평론가인 가말 알기타니(1945~)는 “모든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쓰는 위대한 아랍 시인”이라고 깡바니를 칭송하기도 하였다([http://www.nizar.net/the\\_poet.htm](http://www.nizar.net/the_poet.htm)).

한편 성적인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시집은 사랑과 성이 금지되어 있던 당시의 아랍 젊은이들에 의해 한 달 만에 매진될 정도였다. 시행들은 순식간에 널리 퍼졌고, 특히 『당신의 젖가슴』이란 작품은 시인에게 명성을 안겨 주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 시를 낭송하였으며 이 작품은 다마스쿠스의 모든 교실 칠판에 기록될 정도였다고 한다([http://www.onefineart.com/en/artists/nizark/kabbani\\_english2.shtml](http://www.onefineart.com/en/artists/nizark/kabbani_english2.shtml)).

보물의 자물쇠를 풀어!  
 불타는 가슴들을 드러내  
 구속된 불을 은폐하지 마.  
 너의 가슴들은 가장 아름다운 두 개의 그림들.  
 두 개의 비단 공들이 관대한 아침에 의해 회전한다.  
 그러니 나의 작은 고양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자유를 가져봐  
 가까이 와  
 계절의 순환과 함께  
 네 가슴의 운명을 생각해봐  
 당황하지 마.  
 자신의 가슴을 숨기는 여자는 바보야  
 키스도 받지 못한 청춘을 지나가게 하자  
 나는 그녀의 몸을 끌어당겼다  
 그녀는 거부하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흥분에 떨며 나에게 기대어 몸을 흔들었다



떨리는 가슴을 내어 주었다  
 그리고 술 취한 듯한 열정으로 말하길  
 “나는 불을 만지는 길 거부할 수 없어”...

(Nizar Qabbani part I 1983, 69~71)

깡바니는 문제의 시집이 발표된 1년 후인 1945년부터 카이로, 앙카라, 런던, 마드리드, 베이징, 베이루트 등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으며, 1948년에는 두 번째 시집 『젓가슴의 어린 시절』을 발표했다. 그의 첫 번째 근무지인 카이로의 개방적인 분위기는 시인을 더욱 자유스럽게 만들었고, 그의 시어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Allen 1987, 249).<sup>7)</sup>

이어 1956년에 깡바니는 여성의 내적 세계를 더욱 탐구한 『시들』을 출판했다. 이 시집에서 시인은 처음으로 자신을 1인칭 여성으로 사용함으로써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을 위한 대변인이 되었다(Mona Mikhail 1979, 60).<sup>8)</sup> 그는 독자들로 하여금 여성의 숨겨진 세계를 경험하고, 남성 주도 사회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들을 1인칭 화자를 통해 직접 듣게 만들었다(Mona Mikhail 1990, 63).<sup>9)</sup> “50리라라구../ 웃기지 마세요../ 누구에게 줄 돈인가요. 누구에게 줄../ 날 낙태시키려고?/ 내 수의를 만드는데 쓸 돈인가요?/ 이게 바로 나의 몸값인가요?/ 순결의 보상인가요? 썩어 빠진 놈/ 난 썩어빠진 돈 때문에 당신에게 온 게 아니랍니다/ 고마워요../ 내가 낙태를 할게요../ 나도 아이에게 형편없는

7) 깡바니는 이후에 시집 『삼바』(1949)와 『당신은 나의 것』(1950)을 발표했는데, 초창기의 네 시집은 여성에 관한 장편 서사시의 일부분들인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일부 리듬이나 시어에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동일한 영혼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Allen 1987, 246). 그러나 그의 초기 사랑시(1944, 1948)가 성에 걸땀된 동시대 젊은이들을 대변했다면, 이후의 사랑시(1949, 1950)는 여성에 대한 심미적인 관심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견해 또한 있다.

8) 깡바니는 아랍 여성들의 침해된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여성들에게 반란을 일으켜 무기를 들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그는 여성을 무심한 사회의 저당물로 묘사하기도 보다는 스스로의 허약함에 의해 희생된 존재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9) 깡바니는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날/ 나는 이미 내려진 사형집행 판결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법정의 문을 본적이 없습니다/ 판사의 얼굴을 본적도 없습니다...”라는 작품에서는 화자를 여성으로 명시함으로써 작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아빠를 갖게 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임신부』에서는 연인에게 배신당한 임신부의 문제를 파격적으로 다루었다(Nizar Qabbani part I 1983, 340~342). 아랍세계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사회와 가족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기된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아랍사회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혼 여성의 임신과 낙태의 실태를 고발하였다.

한편 『신문과 함께』라는 작품에서는 카페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남자에게 끌리는 마음을 여성화자의 1인칭화법으로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여자는 남자에게 말 한 마디 붙여보지도 못하고 그를 흘끔흘끔 훑쳐보기만 한다. 그리고 차를 마신 뒤 신문을 덩그러니 남겨두고 사라져가는 그 남자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다. 니자르 깡바니는 이 작품을 통해 우연히 마주친 멋진 남자에 대해 첫사랑의 감정을 가졌을 수많은 아랍 여성들의 마음을 대신 노래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노래로 불리면서 전 아랍세계 여성들에게 대단한 사랑을 받았다(임병필d 2008, 16~17).

그가 외투에서 신문을..  
 성냥을 꺼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내 앞에 있는 설탕을 집었다  
 찻잔에 두 조각을 녹였다  
 시간이 좀 지났건만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나를 사로잡은 열정을 알지도 못한 채  
 내 앞에 있는 외투를 들고는  
 서둘러 사라졌다  
 신문을 남겨둔 채..



홀로

나처럼.. 홀로(전문)

1966년 깡바니는 작품에 전념하기 위해 외교관직을 사임하였으며, 자신의 작품을 출판하기 위해 출판사를 설립하였다. 같은 해 깡바니는 20여 년 동안 외교관으로서 시리아 외부에서 느꼈던 감정적·사회적·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랑에 대한 인식을 솔직한 시어로 표현한 『글자로 그림 그리기』를 발표했다.<sup>10)</sup>

### III. 1967 전쟁과 참여 시인으로의 전향

1967년 6월 4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테러에 대한 응징과 아랍국가들의 공격 기도에 대한 자위를 명분으로 공중기습공격과 시나이반도에 대한 대공세를 전개하였다. 이후 전쟁 발발 6일 만에 아랍연합군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전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에 넘겨주고 말았다. 이와 같은 어이없는 대패는 아랍민중들과 니자르 깡바니에게 항복하던 그날까지도 승리를 자신만만하던 아랍정권들과 지도자들에게 속았다는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그 충격과 트라우마는 사랑과 여성 해방을 노래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던 니자르 깡바니를 아랍의 정권, 정치가, 경찰, 침묵하는 대중, 전쟁을 부추기는 아랍문화를 향해 ‘칼을 품은 듯’ 독설을 내뱉는 행동가로 전향하게 만들었다(Moreh 1976, 275~276)<sup>11)</sup>

10) 특히 시인의 시세계와 작가의식이 전복되는 주요 시점이라 할 수 있는 1967년 전쟁 이후에도 사랑과 여성에 관한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작품의 수에서 보면 ‘사랑과 여성’에 관한 작품이 ‘전쟁과 정치’에 관한 비판보다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7년 전쟁 이후의 니자르 깡바니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작품이 전쟁 이후의 충격과 변화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11) 니자르 깡바니는 1967년 대패 이후 “그것이 사랑을 쓰는 시인으로부터 칼로 시를 쓰는 시인으로 한순간 나를 변화시켰다”, “6월 이후 오로지 한 마리 말에 올라타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분노였다”라는 말들로 자신의 의식 변화를 언급하였다(Nizar Qabbani 2001, 21).





그런데 아랍문학의 역사에서 전쟁과 그 충격을 작품으로 다룬 것이 니자르 깡바니가 처음은 아니다. 문학과 전쟁, 문학과 정치의 역사는 문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으며, 끝없는 전쟁과 사회적 격변을 겪어야 했던 아랍에서는 정치가 언제나 문학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으로 1948년 제1차 중동전쟁 당시의 팔레스타인 시인 압둘라힘 마흐무드(1913~1948)는 강단을 버리고 직접 총을 들었으며, 팔레스타인의 샤자라 마을을 수호하다 산화하였다. 또한 레바논 시인 칼릴 하위(1919~1982)는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이에 대하여 침묵만을 지키는 아랍국가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였다(송경숙 1999, 153~154).

한편 전쟁문학의 목적이 호전적인 정신을 고양시키는 데 있다는 『전쟁문학의 기능 *The Function of War Literature*』의 주장과는 달리 니자르 깡바니는 1967년 전쟁 이후의 많은 작품들에서 전쟁의 호전적이고 영웅적인 분위기를 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깡바니는 전쟁의 경험을 비판하고 전쟁의 매력을 소멸시키는데 집중하였다. 즉 니자르 깡바니의 전쟁시들은 수세기 동안 영광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전쟁에 대한 전통적인 신비감을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태동했던 것이다. 그는 전쟁에 대한 이상주의와 영웅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전쟁의 논리와 잔학행위들을 정당화하는 전통적인 신화들을 붕괴시키려고 노력했다. 또한 그는 제국주의 열강들과 지역 동맹들의 간섭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어이 없이 패배했다고 주장하는 아랍정권들의 거짓과 기만을<sup>12)</sup> 반박하였다. 깡바니는 아랍연합군이 1967년 전쟁에서 대패한 이유가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혹한 독재 정권과 아랍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적·역사적·문화적 질병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Gohar 2011, 115/ Alkhalil 2005, 243).

그래서 니자르 깡바니는 전쟁의 주적인 이스라엘을 비난<sup>13)</sup>하기보다는 아랍

12) 이집트 정부는 1967년 패배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음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나세르 정부는 예멘의 내전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아흐마드 독재 정부를 전복시킨 뒤 반 사우디아라비아 성향의 아달라 살탈로 대체한 바 있다. 결국 이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이다(Gohar 2011, 109).



내부의 문제들을 비판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처럼 깡바니는 아랍의 독재, 정치가, 경찰, 침묵하는 대중들과 아랍사회의 영웅주의나 전쟁 관습과 같은 후진성을 폭로하기 위해 자신의 시세계와 작가의식을 혁신적으로 변모시켰다. 따라서 니자르 깡바니의 1967년 이후 작품들은 “폭로의 시학(a poetics of disclosure)” 또는 “반대의 시학(counter-poetics)”에 바탕을 두고 있다(Gohar 2011, 97~98)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깡바니는 전쟁의 패배와 아랍 내부의 타락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전쟁과 적에 대한 개념을 재 정의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적이라는 개념을 서구의 무기들로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니라 전쟁 발발에 불을 당긴 아랍의 독재자들이라고 정의 내렸다. 다시 말하면 깡바니는 실제적인 전쟁과 갈등들이 아랍민중들의 마음속에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투쟁의 기반 위에서 일어났다고 강조함으로써 적의 개념을 다시 정의내리고 전쟁의 장소를 다시 규정하였다. 여러 편의 작품들에서 깡바니는 전쟁을 복합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 조직으로 정의하면서, 전장은 전선과 아랍 공동체 내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시인은 전쟁과 영웅주의에 관한 뿌리 깊은 신화들을 해체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그의 작품은 정권의 선전 기계들에 의해 보급된 전쟁의 이미지를 비판함으로써 아랍주의와 아랍민족주의의 신화가 실패했다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Gohar 2011, 99).

우선, 1967년 전쟁 이후 깡바니는 아랍의 정권들에게 전쟁의 패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즉 깡바니는 전쟁에서 맞서 싸운 당사자들보다는, 1967년 전쟁과 이후의 계속되는 좌절감이나 상실감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독재자들에 대한 깊은 분노와 그들의 정치적인 타락을 비난했다(Gohar 2011, 98~99).

이처럼 깡바니가 아랍의 독재정권을 향해 비판을 퍼붓는 이유는 전쟁이 발

13) 깡바니는 “수에즈 전선의 한 병사로부터 온 편지”에서 1956년 이집트를 공격했던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이 작품에서 깡바니는 그들을 “국제 해적, 푸른 눈과 검은 마음을 가진 용병들”로 묘사했다. 그는 작품을 통해 중동에 대한 서구 제국들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격자들을 “범죄자들과 도둑들”이라고 묘사했다(Gohar 2011, 113~114).



발한 원인과 너무도 어이없는 대패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독재정권들은 전쟁 발발 이전의 전시 체제 동안에도 거저 영웅주의와 무의미한 수사들로 대중들을 기만했으며, 내부의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위장하기 위해 전쟁에 기꺼이 참여했기 때문이다(Gohar 2011, 106).<sup>14)</sup>

일부 작품들에서 깡바니는 위선적이고 타락한 아랍의 정치가들을 아랍세계의 구원과 개혁을 가로막는 기회주의자들이나 부당 이득자들로 묘사하였다. 그들은 대중들의 이익에 적개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반동적인 무리들과 연합하여 아랍 공동체의 열정과 발전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깡바니는 작품 『정부와 참새』에서 잔인한 복종의 기술로 무장한 경찰 조직을 등에 업고 있는 아랍의 정치체제를 신랄히 비판했다. 이 작품에서 아랍대중들은 분명한 이유도 없이 고문을 당하고 굴욕을 당한다. 그의 또 다른 작품 『통치자와 참새』에서는 아랍세계의 자유와 해방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아랍정권들에 의해 자행되는 학대 정책을 폭로했다(Gohar 2011, 99~100). 참새는 원형이 가지고 있는 작고 힘없는 이미지처럼 독재정권과 권력자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핍박받는 아랍민중들을 상징한다.

나는 아랍세계를 돌아다닌다  
 나에게에는 공책밖에 없다.  
 그런데 스파이가 스파이에게 나를 보낸다  
 군대가 군대에게 나를 던진다..  
 나는 주머니에 참새 한 마리밖에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런데 경찰이 나를 가로 막는다  
 참새에게 패스포트를 요구한다

<sup>14)</sup> 1956년 수에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집트 정부는 예멘 내전에 개입하였으나 실패한 이후 이를 보상받을 곳을 몰색하였다. 특히 예멘 내전 전비로 인해 경제가 몰락하자 이집트 정부는 여론을 잠재울 새로운 군사 작전지가 필요했다. 이에 이집트는 걸프만에 있는 티란 해협을 봉쇄하여 이스라엘 국적의 선박 통행을 막고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전략물자 운반선에 대해 통행을 금지하였다. 이와 같은 군사작전이 이스라엘에게 개전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Gohar 2011, 114).



내 조국에서 하는 말도 패스포트를 필요로 한다(2연)

(Nizar Qabbani partⅢ 1983, 241~246)

또한 「연설」이라는 작품에서 깎바니는 반대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검열과 통제 정치를 고발한다. 작품 속의 화자는 통치자가 아랍세계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웃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웃음으로 인해 통치자의 연설이 중단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정권의 비밀경찰에 의해 체포된다. 그로 인해 화자는 10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된다. “군인들이 나를 체포했을 때/ 내가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나는 웃는 일이 정권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지를 알지 못했다/ 웃음이 요금과 도장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세뇌와 손가락 자르기에 관해 알지 못했다” 이처럼 깎바니는 아랍정권의 압제적인 주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 조직을 대중들의 피와 고통을 섭취하는 정치 조직의 파괴적인 권력으로 묘사했다(Gohar 2011, 102~103).

한편 작품 「술탄」에서는 전쟁의 패배 원인을 대중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술탄의 주변을 에워싼 채 그의 귀를 틀어 막고 있는 “개들과 스파이들”의 억압과 폭정을 직설적인 언어로 표출하였다. 이 작품은 현재까지도 많은 아랍인들에 의해 독재에 의한 좌절감을 표현할 때 인용되고 있다([http://www.nizar.net/the\\_poet.htm/](http://www.nizar.net/the_poet.htm/) [http://allpoetry.com/Nizar\\_Qabbani](http://allpoetry.com/Nizar_Qabbani)).

내가 만일 안전을 보장받았더라면  
내가 만일 술탄을 만날 수 있었다면  
그에게 말했을 것이다: 오 나의 술탄이시여!  
나의 외투가 당신의 굶주린 개들에 의해 찢겨졌습니다,  
당신의 스파이들이 나를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들의 눈들이  
그들의 코들이



그들의 발들이 나를 뒤쫓고 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마치 숙명처럼  
 그들이 내 아내를 심문합니다  
 내 모든 친구들의 이름들을 적습니다  
 오 술탄이시여!  
 왜냐하면 내가 감히 당신의 귀머거리 벽들에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슬픔과 시련을 폭로하려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신발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오 나의 술탄이시여!  
 당신은 이미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백성들 절반이  
 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깡바니는 레바논을 포함한 아랍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외국 군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에도 불구하고 아랍의 지도자들과 정치가들이 여전히 자신들만의 상아탑 속에 웅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점령지의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거나 텐트에서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고통을 들어주기보다는 “스웨덴 여자들은 최고야/ 스웨덴에선 섹스를 술처럼 술집 테이블에서 할 수 있지” 등과 같은 외설을 일삼고 있었다. 이처럼 깡바니는 분노의 수사와 외설적 언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분노와 좌절을, 현대 아랍의 터무니없는 현실을 폭로하였다. 이처럼 깡바니가 외설적 표현들은 사용한 이유는 터무니없는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의도된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Gohar 2011, 111).

특히 『1967년 대패의 메모 위에 쓰인 여백』이란 작품에서는 아랍의 정치적·심리적·전략적 실수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 작품은 좌익과 우익 모두에 대한 투쟁으로서 아랍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외 없이 공격하였다. 깡바니는 ‘우



리'라는 시어를 통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폭력, 충동성, 위선, 이중성, 게으름과 같은 아랍문화 전체의 문제임을 지적한다(Alkhalil 2005, 241). 이 작품은 말하고 싶지만 글로 표현할 수 없었던 많은 아랍민중들에게 인기를 얻었으며, 니자르 깡바니가 사랑과 여성이라는 주제로부터 아랍-이스라엘 전쟁과 정치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Allen 1987, 248).

친구들이여, 난 당신들에게 낡은 언어와  
낡은 책들의 죽음을 고합니다  
낡은 구두처럼  
우리의 말들은 구멍들로  
먼지와 경멸과 음탕한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패배를 가져왔던 생각의 종말을 고합니다(1연)  
우리가 전쟁에 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방의 수사들로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못했던 영웅심으로  
싸움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블라와 라바바의 논리로  
싸움에 임했기 때문입니다...(5연 일부).  
네이와 미즈마르로  
승리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8연)  
5천년 동안..  
우리는 지하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턱은 길어졌고  
우리의 돈은 잊혀졌습니다  
우리의 눈은 파리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13연 일부)  
우리의 오랜 고통은 감정들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들은 파괴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미술..  
 체스..  
 낮잠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공동체였을까요??(14연)

(Nizar Qabbani PartⅢ 1983, 69~98)

특히 이 작품은 “압둔 나세르에게 보내는 분노의 편지”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깡바니는 1967년 대패 이후 나세르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 이유는 나세르를 단순히 아랍의 한 정치 지도자라고 보지 않고 “아랍 움마의 지도자, 아랍 투쟁의 지도자, 모든 아랍인들의 정신적 아버지, 가장 강력한 아랍 국가인 이집트의 대통령, 이스라엘이나 서구 제국주의자들에게 맞설 가장 크고 강력한 군대의 지도자” 등 아랍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믿음에 대한 좌절 때문이었다(Nizar Qabbani 2001, 31~32).

이후 1995년에 깡바니는 아랍세계에 커다란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작품 「그들이 언제 아랍의 죽음을 선언할까」를 발표했다. 이 작품을 통해 깡바니는 부족들은 싸우는 부족들이며, 여성들은 억압받고 인권은 무시되는 아랍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비판했다. 그는 시인들이 “50디르함과 한 줌의 쌀을 얻기 위해서 칼리파의 발을 핏물” 세상을 혐오한다. 동일한 작품에서 깡바니는 비밀경찰들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들을 묘사한다. 그곳에선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하기보다 정권을 더 두려워한다. 또한 그는 언론이 정권의 밑고자들에 의해 통제되고 언론인들이 부패한 정권을 위해 재능을 팔아야만 하는, 칼과 불에 의해 통치되는 세계를 공격한다. 이 작품에서 깡바니는 “아랍세계는 가구 경매에 전시되었지만 아랍인들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아랍을 국제 정치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부도난 정치 시스템이라고 소개한다(Gohar 2011, 112).

1996년에는 까나 대학살을 다룬 「까나」를, 1997년에는 「테러리즘과 함께」를 발표하는 등 시인은 이후에도 계속해 아랍의 정치와 사회를 고발하는 작품들을



발표했다. “아랍 국가들은 체스판의 말들 같았고, 흩어진 돌들 같았으며, 날아 다니는 종이들 같았다”는 깡바니의 말처럼 1967년 전쟁으로 인한 가장 위협스런 결과는 아랍국가들이 분열되었으며 통치자들이 도덕적인 교훈과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이었다(Gohar 2011, 109).

한편 깡바니는 아랍의 정치와 더불어 1967년 전쟁을 아랍지역 외부의 싸움으로 왜곡시키는 작가들과 시인들을 비판했다. 민족주의적인 성향의 시인들은 이슬람 역사에 뿌리를 둔 승리의 신화들을 열렬히 회상함으로써 현실을 회피하려 하였다. 이들 시인들은 패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아랍 군대가 패배한 원인을 이스라엘에게 정교한 무기를 제공한 서구 제국주의의 개입 탓으로 돌렸다. 그들은 패배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의 원인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십자군전쟁과 안달루스 점령과 같이 아랍-이슬람군대가 서구 열강들에 맞서 승리했던 지나간 영광을 되살려 과거로 도피함으로써 1967년 전쟁 이후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시도했다. 이에 깡바니는 전체 아랍민족을 망상과 백일몽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우익 문인들의 회피와 후퇴의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그는 1967년 전쟁에서 패배한 정권들의 이념적 의도들을 되풀이하는 위선적인 시인들을 향해 아랍지역의 모든 독재와 주도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통곡하는 마음으로 비판하였다(Gohar 2011, 100~101).

다음으로, 깡바니는 전쟁에 대패한 이후 아랍민중들의 부정적인 반응 또한 비판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커피숍에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이슬람 율법 슬로건을 외치거나 대패의 실제 원인들을 오해하는 아랍세계의 어리석은 현실을 논평하였다(Gohar 2011, 109).

대표적으로 깡바니는 『빵, 하쉬쉬 그리고 달』이란 작품에서 환멸을 느껴 현실세계를 모면하려는 아랍민중들의 도피 행태를 폭로했다. 아랍민중들은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무지와 후진성의 의식들로 내몰리게 된다. 수치와 패배의 미로 속에 사로잡힌 아랍민중들은 그들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려는 무자비한 정권들의 희생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의 가장 큰 비극은 결코 망상 여행으로부터 되돌아올 수 없





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비극의 원인은 아랍민중들에게 억압적인 정책을 강요함으로써 인간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독재 체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깡바니는 이 작품을 통해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에 패배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아랍세계는 패배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으며, 마약으로 도피를 할 뿐만 아니라 미신과 우상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의심스런 역사적 이야기들과 선조들이 이룩했던 고대 영웅주의의 거짓 이야기들에 중독되어 있었다(Gohar 2011, 101~102).

달이 태어나면 동방의 사람들은 가게를 떠나  
달을 만나기 위해 떼를 지어 행진한다  
빵과 라디오를 들고 산꼭대기로  
마약을 가지고  
그곳에서 몽상을 사고 판다  
달이 생명을 가지면 그들은 죽는다.  
저 빛나는 원반이 우리의 고향에  
무엇을 할 수 있나?  
예언자의 땅에  
단순함의 땅에  
담배를 씹는 사람들에게, 마약상들에게?  
달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들은 곡식과 아이들이 허락되기를 희망하며  
부드러운 양탄자를 펼치고는  
운명이라 부르는 아편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순진하고 무지한 나라에서  
우리는 끝이 없는 노래들을  
동방을 파괴하는 소모의 형태를 천천히 씹는다  
우리 동방은 역사를 씹고



무기력한 꿈들을 속빈 전설들을 씹는다  
 우리 동방은 악당 아부 자이드 알힐랄리에게서  
 영웅주의의 절정을 찾는다...(작품 일부)

이상에서처럼 갑바니는 아랍의 독재정권, 위선적인 정치가들, 정권의 주구 역할을 하는 경찰, 진실을 왜곡시키는 문인들, 무기력한 아랍민중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더불어, 지하드(성전)에 참여하는 것이 아랍 무슬림의 도덕적인 우월감이라고 묘사하는 아랍문화의 영웅주의 신화들을 분쇄하려고 시도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을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일로 미화하는 아랍문화 또한 전쟁을 부추기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아랍의 역사와 민담에는 전쟁과 전쟁 영웅들을 부족의 긍정적인 가치들이나 도덕적인 덕목으로 미화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이슬람 이전 시대와 초기 이슬람 시대(622~661)의 아랍사회에는 다히스(Dahis)와 알가브라(al-Ghabra) 간의 부족 전쟁<sup>15)</sup>과 관련된 이야기들에 영향을 받은 전쟁의 전통으로 인해 부족들 사이에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민담들 또한 안타라, 아부 자이드 알힐랄리, 사이프 븐 디 야잔과 같은 인기 있는 영웅들의 모험들을 묘사하였다. 이슬람의 성서인 코란에도 전쟁을 이슬람세계를 침입하는 이들에 대항하는 지하드로, 이슬람 초기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투쟁으로 미화하는 구절들이 있다. 이슬람문화에선 적들에 대항하는 전쟁에서 사망한 이들을 순교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들은 성자들이나 예언자들과 함께 천국에 거주하며 천국의 성스런 주민들과 결혼을 하는 즐거움을 누린다고 보았다.<sup>16)</sup>

15) 이슬람 이전 시대에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부족들 내부의 적대감이 극대화되면서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일컬어 “아랍의 나날들”이라고 부른다. 이 당시 발생했던 전쟁들 중에는 낙타 한 마리의 부상에서 비롯되어 4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바크르 부족과 타글리브 부족 간의 바수스전투가 있다. 또 다른 전투가 ‘다히스와 알가브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전쟁은 압스 부족과 두브얀 부족 사이에서 다히스라는 수말과 알가브라라는 암말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경주 때문에 12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바로 이 전투에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안타라가 참전했다(<http://www.poemhunter.com/antarah-antar-ibn-shaddad/biography/>)

16) “성전하였거나 살해당한 그들을 속죄하여 줄 것이며 강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랍-이슬람의 문화, 종교, 역사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영웅주의와 성전의 신화를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니자르 깁바니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전쟁의 신화에 저항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오랜 기간 외교관 생활을 했던 깁바니는 의심스러운 정치 목적들을 획득하기 위해 대중문화와 신화 속에 거짓이나 기만을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영웅주의를 파괴하고 제국주의의 개입 때문에 패배했다는 거짓들을 분쇄하기 위해 1967년 전쟁에서 아랍연합군이 대패한 실제 이유들을 폭로하려 시도했다(Gohar 2011, 107).

또한 깁바니는 전쟁에 앞서 이루어졌던 신화들을 전복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을 도전적인 십자군으로 묘사한 권력의 공식적인 담화를 비판했다. 그는 전쟁 전에 반드시 존재하는 정치적인 선전들을 고발하고 심문함으로써 전쟁을 패배로 이끌었던 문화적인 신화에 대한 비판을 가하였던 것이다(Gohar 2011, 102).

한편 시인은 살해된 아내의 이름을 딴 작품 『발끼스』를 통해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표출한 동시에 아내를 살해한 아랍문화를 고발하였다. 결국 그의 아내를 살해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부족이 부족을, 뱀이 뱀을, 거미가 거미를 잡아먹듯” 전쟁을 부추기는 아랍문화 때문이었다는 것이다(Alkhalil 2005, 275).

고맙소..

고맙소..

내 사랑을 살해해줘서.. 순교자의 영혼에

건배를 하려는군요..

내 시를 암살해줘서.

우리가 아니면 이 땅 어디에도 시를 암살하는

---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이라'와 같은 코란 3장 195절뿐만 아니라 코란 2장 246절, 4장 74절, 4장 95절 등 성전을 언급한 구절들이 많이 있다.

(<http://www.qurany.net/cgi-bin/islamkit/islamkit.cgi?Lang=English>).



민족이 있을까요? (1연)  
 그들이 당신을 살해했어..  
 나이팅게일의 목소리들을 암살하는 그런  
 아랍 민족은 누구일까요?..  
 부족들이 부족들을 잡아먹고  
 뱀들이 뱀들을 살해하고  
 거미들이 거미들을 잡아먹었다..(3연 일부)  
 그들이 내 사랑 당신을 내 손에서 빼앗아갔어..  
 그들이 시를 내 입에서 빼앗아갔어..  
 그들이 쓰기와..읽기와..어린 시절과  
 소망들을 빼앗아갔어...(28연 일부)  
 아름다운 사람, 이제 편히 쉬어..  
 당신 없이 시는 불가능해.. 여성에 대한 사랑은 불가능해  
 아이들 세대들이 당신의 긴 머리핀에 대해 묻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연인들이 진정한 교사인 당신에 관해..  
 묻게 될 거야  
 언제가 아랍인들이 알게 될 거야..  
 자신들이 예언자를 살해했다는 것을..(30연)

(Hilmi Budayır 1995, 84~97)

한편 깡바니는 『아랍 궁정 앞의 명예 범죄』라는 작품에서 아랍의 유명한 사랑 이야기 속 주인공인 까이스를 불러온다. 원래 이야기에서 까이스는 연인 라일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한다. 그런데 이 작품 속의 까이스는 부정을 저지른 아내의 한심한 남편으로, 연인을 버리고 상아탑으로 숨어버린 겁쟁이로 나타난다. 깡바니는 1967년 대패 이후 아랍세계의 비참한 현실을 무시하고 망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현대 아랍 지성인들을 상징하기 위해 까이스를 가져온 것이다(Gohar 2011, 108). 자신의 연인을 위해 죽음을 무릅쓴 사랑과 용기



의 전형인 까이스가 나약하고 한심한 겁쟁이의 모습으로 현신한 것이다.

까이스는 여전히 사랑시를 쓰고 있다  
 유대인들이 라일라의 침대로 기어들어갔다  
 동네의 개들조차도 짖지 않았다..  
 총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다  
 “고상한 명예는 행복하지 않아”  
 우리는 침략자들과 세 번이나 섹스를 했다..  
 우리는 세 번이나... 순결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각종 의식들로 남성다움에게 안녕을 고했다  
 “고상한 명예는 행복하지 않아”  
 우리는 증명서를 바꾸었다.. 우리는 관계들을 부정했다..  
 우리는 법률서류들을 불태웠다..

(Nizar Qabbani Part3 1983, 227~240)

이처럼 깡바니는 아랍세계의 현 상황이 내적 갈등과 부족들 간의 적대감으로 가득 찼던 이슬람 이전 시대 아랍역사의 확장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전쟁과 패배의 비극을 다루기 위해 고대 아랍역사를 가져온다. 깡바니는 과거를 현재와 병렬시킴으로써 현재의 상황이 과거 부족들 간의 분쟁들과 적대감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Gohar 2011, 110).

#### IV. 결 론

니자르 깡바니는 1967년 6일만에 끝난 아랍-이스라엘 전쟁의 어이없는 대패를 경험한 뒤 줄곧 아랍민중들의 억압된 사랑과 여성의 권리를 노래하던 ‘사



량과 여성의 시인'에서 전쟁의 패배를 가져온 대상들을 향해 가슴에 칼을 품은 듯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참여 시인'으로 전향했다. 이처럼 깡바니를 혁명적 시인으로 전향하게 만든 이유는 너무도 허무한 패배로 인한 절망감과 아랍민족 주나 아랍 형제국들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 때문이었다. 결국 팔레스타인 민족의 생존권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민중혁명을 통한 무력투쟁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한편 깡바니는 1967년 이후에 생산한 많은 작품들을 통해 1967년 전쟁의 주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보다는 아랍 내부의 문제들을 고발하는 데 주력했다. 왜냐하면 전쟁의 패배가 정권이나 정치가들이 말하듯 이스라엘에 현대식 무기를 제공한 서구 제국주의의 개입에 있기보단 전쟁 이전부터 대중들을 기만해 승리를 자신하게 만들었던 독재정권, 부패한 정치가들과 경찰, 친 제국주의적이고 정권을 비호하는 문인들,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중들에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랍이 전쟁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 이면에는 이슬람 이전 시대부터 있어 왔던 전쟁에 대한 영웅주의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았다.

그래서 니자르 깡바니는 전쟁의 주적인 이스라엘이나 서구 제국주의보다는 아랍세계 내부를 향해 칼을 품은 듯 독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결국 1967년 이후 니자르 깡바니의 작품들은 내부의 문제들을 드러내는 “폭로의 시학”이며 내부의 무기력하고 기만적인 정책에 반하는 “반대의 시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1967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패배, 트라우마, 니자르 깡바니, 사랑, 전향, 참여, 폭로의 시학]



## 참고문헌

- 송경숙(1999). “현대 아랍시에 나타난 팔레스타인 문제”, 『지중해지역연구』 제1집, 부산외대 지중해연구소.
- \_\_\_\_\_(2005). 『팔레스타인 문학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임병필(2003). “니자르 깡바니의 작품세계”,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3-1호, 한국이슬람학회.
- \_\_\_\_\_(2006). 『아랍시의 자유와 전통』, 서울: 화남출판사.
- \_\_\_\_\_(2007). “아랍어 구어체시의 발전과정 연구”, 『아랍어와 아랍문학』 11-2호,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 \_\_\_\_\_(2008). 『아랍인의 사랑』, 서울: 한국학술정보.
- Badawi M.M.(1975). *A Critical Introduction to Modern Arabic poetr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1992). *Modern Arabic Literatur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ssam K. Frangieh & Clementina R. Brown.(1999). *Arabian love poem-Nizar Qabbani*, America: Lynne Rienner Publishers.
- Gohar, Saddik M.(2011). “Re-historizing the Six-Day War: The counter-Poetics of Nizar Qabbani”, *Journal of Literary Studies[online]*, Vol.3, No. 1.
- Hilmi Budayir(1995). *al-‘ibda’ wa al-shi’r*, al-Qāhira: Dār al-Ma‘ārif.
- Mona Mikhail(1979). *Images of Arab Women: Fact and Fiction*, Washington: Three Continents Press.
- Moreh, S.(1976). *Modern Arabic Poetry 1800-1970*, Leiden: E.J.Brill.
- Alkhalil, Muhamed (2005). *Nizar Qabbani: From romance to exile*, The university of Arizona.
- Qabbani, Nizar(1983). *al-A‘ma:l al-shi’riyah al-ka:milah part 1-3*, Beirut: Manshu:ra:t Nizar Qabbani.
- \_\_\_\_\_(1993). *The Complete Political Works*, Beirut: Nizar Qabbani Press.
- Allen, Roger(1987). *Modern Arabic Literature*, New York: The Ungar Publishing Company.
- Mansour, Wisam(2004). *Kabbani’s Women: From The Sultan’s Wife To The Lady Friend in Exile*, Ankara Üniversitesi Dil ve Tarih-Coğrafya Fakültesi Dergisi 44,1.
- [http://www.nizar.net/the\\_poet.htm](http://www.nizar.net/the_poet.htm)
- <http://www.poemhunter.com/antarah-antar-ibn-shaddad/biography/>
- <http://king-saud.academia.edu/httpfacultyksuedusaAmandefault.aspx/Papers/145676/Niz>



ar\_Qabbanis\_Balqis\_Translation\_into\_English\_with\_an\_introduction  
[http://allpoetry.com/Nizar\\_Qabbanis](http://allpoetry.com/Nizar_Qabbanis)  
[http://www.onefineart.com/en/artists/nizark/kabbanis\\_english2.shtml](http://www.onefineart.com/en/artists/nizark/kabbanis_english2.shtml)  
<http://thenewliberator.wordpress.com/2011/02/04/footnotes-to-the-book-of-the-setback-by-nizar-qkabbanis/>  
<http://www.qurany.net/cgi-bin/islamkit/islamkit.cgi?Lang=English>

논문접수일 : 2012년 08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2년 09월 2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9월 28일